

인쇄의 디지털化, KIPES 2011 이달 28일 개막 제1회 한국산업대전으로 개최, 시너지 효과 기대



김 충 진
(주)한국이넷엑스 대표이사

국내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인쇄인의 축제, 제18회 국제인쇄 산업대전 KIPES 2011이 이번 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KIPES 2011 전시회는 KINTEX 제1전시장 Hall 5에서 1만1천㎡의 규모로 개최될 뿐만 아니라 KINTEX 제2전시장 개장과 함께 한국컨벤션산업 사상 가장 큰 규모인 10만8천㎡의 규모로 2011한국산업대전으로 개최된다. 따라서 KIPES 2011 비롯,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전, 한국기계전, 국제종합공구전, 금속산업대전, 국제종합전기 기전이 합동으로 개최됨에 따라 제1회 한국산업대전은 국내바이어 15만명, 해외바이어 5천명이 참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KIPES 2011의 발전 시너지 역시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77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문산업전시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를 비롯하여 전문산업전시회를 130여 회 개최해 오고 있는 김충진 (주)한국이넷엑스 대표이사를 통해 KIPES 2011에 대한 기대 효과를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

1. 국제인쇄산업대전 KIPES 2011의 특징과 현재 인쇄업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978년 첫 회를 시작으로 금번 18회를 맞이하는 KIPES 2011 전시회는 국내 유일의 인쇄전문전시회로

11,000㎡의 면적에 23개국 200개사가 참가하며,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에서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최근 변화하는 인쇄트렌드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인쇄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디지털인쇄 대표업체들의 최신제품과, 한층 다양해진 국내외 후가공관련 장비들, 인쇄와 IT의 융합으로 진화되고 있는 인쇄물 및 특수인쇄, 인쇄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인쇄관련 솔루션, 고품질 인쇄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지, Color Management 제품 등 최신의 인쇄장비, 인쇄기술과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KIPES 전시회의 특징으로는 디지털 인쇄 관련 업체들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유명 전시회에서 나타났듯이 인쇄산업의 디지털화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디지털인쇄를 주도해 가는 HP, Canon, Xerox, Konica 등 세계적인 디지털 인쇄관련 업체와 디지털 복합기 이를 뒷받침해 주는 인쇄관련 솔루션 업체들이 KIPES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쇄의 디지털화와 함께, 장비뿐만이 아니라 인쇄방식 및 인쇄공정의 혁신적인 변화로 종이뿐만 아니라 금속, 플라스틱, 목재, 타일, 아크릴, 포맥스 등 다양한 소재에 인쇄를 시연하는 UV디지털 인쇄업체의 참여도 이번 전시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과 함께 2011한국산업대전이 개최되는데, 이와 관련해 KIPES 2011의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KINTEX 제2전시장 개장에 따른 관심과 함께 한국 산업대전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자본재 산업에 대한 관심을 모으게 되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단일 전시회로 개최되었던 KIPES 전시회는 유관 전시회들을 병행 개최함으로써 인쇄 관련 산업 및 기타 유관 산업의 제품과 트렌드 등 신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되어 KIPES와 산업대전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전시 전문업체로서의 한국이앤엑스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신지요?

한국이앤엑스는 1977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문산업전시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를 비롯하여 전문산업전시회를 130여회 개최하여 왔습니다. 관련분야의 우수한 제품을 전시소개 함으로써 국내관련 산업 발전과 국제교역진흥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앤엑스가 주최하는 인쇄기기전시회인 KIPES를 비롯하여 이번 한국산업대전에서 병행개최되는 KOPLAS(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전)와 KIMES(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 KOB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등 4대 전

사회가 민간주최자로서는 처음으로 지식경제부 국제 인증은 물론 국제전시협회의 UFI 국제인증을 받음으로써, 국제전시회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역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무역의 날 대통령표창과 산업포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 나은 전시회를 진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산업 발전에 일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점이신지요?

전시회는 시장 확대와 아울러 산업을 발전시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최자로서 국가 산업 육성과 산업과 공생한다는 긍지와 함께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기회 제공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최자는 기술적인 산업의 면보다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 업계와 함께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와 비전을 제시함과 아울러 해외바이어 유

치 등, 국내 산업을 해외에 홍보하여 우리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향후 KIPES 전시회 발전 방향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존 인쇄산업이 제품 영역 확대와 새로운 인쇄 영역이 창출되어 전자인쇄, 포장, 사인 제품들의 짧아진 신제품 출시기간에 맞춰 KIPES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새로운 인쇄시장이 출현되므로 인쇄산업의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앞으로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6. 월간 포장계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모든 전시회 출품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최신의 제품을 개발하여 비교평가를 받으려고, 전시회에 참여하는 만큼 관련 업계 관계자께서 참관하시어 그들의 신기술을 평가함과 아울러 부족함을 일깨워주시어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업체들은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그들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